

학교 통신

안천중고등학교 2017-제25호



2017년 4월 17일

『제 37회 장애인의 날』 안내

촉촉한 봄비로 온 세상이 푸르게 물들어 가는 봄입니다.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날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972년부터 한국신체장애자재활협회(현재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4월 20일을 ‘재활의 날’로 정하여 민간행사를 추진하고 오고 있었습니다.

1981년 UN총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장애인의 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정부행사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법정기념일 축소 방침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하다가, 1989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1991년부터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한 것은, 4월이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이며, 20일은 다수의 기념일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7년 동안의 장애인의 날 슬로건을 보면 장애인식의 방향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30회 장애인의 날 슬로건 - ‘편견, 부끄러움의 또 다른 이름’ (2010)

▶제31회 장애인의 날 슬로건 - ‘편견은 차별을 낳습니다.

배려는 평등을 낳습니다.’ (2011)

▶제32회 장애인의 날 슬로건 - ‘생각의 장애를 넘어 따뜻한 사회로’ (2012)

▶제33회 장애인의 날 슬로건 - ‘우리의 편견으로부터 장애는 시작됩니다’(2013)

▶제34회 장애인의 날 슬로건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행복한 사회’ (2014)

▶제35회 장애인의 날 슬로건 - ‘함께하는 아름다운(미) 세상’ (2015)

▶제36회 장애인의 날 슬로건 - 우리 함께 맞춰가요 ‘하나. 말할텐 눈높이를, 둘. 걸을 땀 발걸음을’ (2016)

▶제36회 장애인의 날 슬로건 - 현재 모집중

장애이해의 시작은 편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동정이 아닌 배려를 통해서 다 함께 가는 사회 복지의 한 축으로 이해해 주시면 보다 나은 새 삶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기	내 용	대상	장소
4.17 ~ 4.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이해주간 운영 - 장애인의 날 기념 '도전 골든벨' 참여 - 대한민국 1교시 시청 - 장애 인식 개선 신문 발행 - 장애 관련 퀴즈 참여 	교직원 학생	교내


- ☞ 1.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놀리지 않고 배려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2. 장애인이란 말 대신 그 친구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 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3.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4. 지나친 도움은 친구의 자립심을 약하게 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지켜봐 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5. 친구가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올바른 행동을 친절하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같이 놀래?”

골방에 숨어있던 시각장애인 설리반을
성공한 CEO로 이끈 말 한마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다.
수군대는 소리가 아팠습다.
“같이 놀래?”
옆집아이가 말을 걸었습다.
내게도 똑같이 말을 걸었습다.
그 친구는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제 인생이 바뀐 사실을.

- 미국의 토크쇼 <오프라 윈프리>에서
성공한 시각장애인 설리반 인터뷰中 -



2017년 4월 17일

안천중고등학교

